

블루멘베르크(H. Blumenberg)의 은유의 해석학*

-『은유학의 범형들』을 중심으로-

최 성 환

주제분류 문화철학, 수사학, 해석학

주요어 은유, 절대적 은유 은유법, 은유학, 수사학, 해석학, 철학적 개념, 철학적 언어, 블루멘베르크

요약문

본 연구는 수사학에 대한 재평가 작업과 병행해서 철학적 글쓰기에 대한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은유를 통해 철학적 개념의 확장을 도모했던 블루멘베르크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철학적 글쓰기는 철학적 사유의 반영이며, 철학적 사유는 현실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급격히 변화하는 현실세계를 고려할 때 새로운 사유와 그에 상응하는 글쓰기의 형식에 대한 물음은 매우 중요한 철학적 주제이다. 전통적으로 이성중심주의(Logozentrismus)의 개념적-논리적 사고를 강조해온 철학에서도 다양한 글쓰기에 대한 요구와 함께 철학의 표현방식에 대한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 연구는 철학적 개념과 언어에서 ‘은유’가 차지하는 위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장식기’(裝飾期)에서 ‘본질기’(本質期)로의 이행 즉 ‘수사학의 르네상스’와 함께 특히 은유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은유가 가진 엄청난 ‘영향사’와 그와 연관된 적용 범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탁월한 수사법을 간주된 은유는 그러나 철학의 전통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은유는 현실의 다양한 층위를 드러내주는 매체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획득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개념적-논리적 사유의 한계와 이와 연관된 은유의 불가피성을 블루멘베르크의 관점을 빌려 살펴보고, 그러한 은유의 정당성 근거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는 은유는 대체될 수 없으며, 심지어 철학적 개념을 포함한 과학의 모든 핵심적 용어들의 근거에 은유가 놓여 있다는 테

* 이 논문은 2007년 중앙대학교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철학탐구 제23집

제를 제시한다. 그런 배경에서 ‘절대적 은유’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개념적-논리적 사고에 숙달된 오성의 입장에서는 접근 불가능한 영역을 주제로 다루고자 할 때, 그 주제에 관한 내용을 인간에게 (이미지로서) 전달하고 사유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길이 필요하며, 이러한 매체가 바로 ‘은유’라는 것이다. 은유는 인간 현존재의 근거로부터 던져지는 ‘답할 수 없는 물음’에 답하고자한다. 물론 이 연구가 직접적으로 ‘철학적 글쓰기’의 물음을 다루지는 않지만, 은유에 대한 이런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철학적 글쓰기의 방향설정 에 대한 이론적 기초도 새롭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수사학의 ‘르네상스’와 은유

글쓰기에 대한 사회적-시대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편견에 가득 차 있던 수사학에 대한 시각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으며, 수사학에 대한 재평가와 적용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관점과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수사학의 르네상스’와 함께 특히 ‘은유’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은유가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영향사’(Wirkungsgeschichte)와, 그와 연관된 적용 범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사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유형은 대체로 의미 전이(轉移)에 따른 수사법이며, 여기서도 특히 은유법은 ‘비유법의 황제’로 간주되어 왔으며,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은유법의 구사능력은 남에게서 배울 수 없는 ‘천재의 징표’라고 말하고 있다.¹⁾

그러나 수사학과 함께 은유는 철학적 전통에서 대체로 부정적인 매체로 평가되어 왔다. 이성중심주의(Logozentrismus)라는 표현이 상징적으로 말해주듯이 철학에서는 개념적-논리적 사고를 강조해왔고 이에 상응하는 표현법을 정통적인 수단으로 인정해왔다. 엄격한 개념적-논리적 진술의 형식을 철학적 글쓰기의 전형으로 간주해 온 것은 아마도 근대의 ‘방법의식’과 함께 철학의 학문성에 대한 일종의 강박관념에서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철학에서도 다양한 글쓰기에 대한 요구와 함께 철학의 표현방식에 대한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미 철학사는 다양한 글쓰기의 유형들을 보여주고 있다.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알 수 있듯이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대화’의 형식이 존재했으며, 프랑스 계몽주의자들 사이에서는 한 때 문학적 방식(특히 소설)으로 자신의 사유를 표현하는 것이 유행이었

1) 김옥동,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2, 92쪽.

다. 짐멜(G. Simmel)과 같은 사상가들은 ‘철학적 에세이’라는 유형의 글쓰기를 선보였으며²⁾, 최근에는 『소피의 세계』라는 소설형식의 철학 입문서가 독자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현실에 걸맞은 철학적 글쓰기는 어떤 유형인가에 대한 물음은 매우 시의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글은 ‘철학적 글쓰기’ 자체를 주제로 다루지는 않는다. 단지 전통적인 개념적-논리적 사고의 형태와, 그와 연관된 철학적 개념과 언어가 인간과 연관된 세계의 다양한 용모를 드러내는데 한계를 가지며,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진술확장적인’ 표현으로 기능할 수 있는 철학적 언어가 요구되고, 이러한 가능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은유’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은유는 세계의 다양한 층위에 접근할 수 있는 사고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층위는 선논리적, 선학문적인 해석학적 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은유의 해석학’이란 제목으로 이 글은 은유에 대한 블룸베르크(H. Blumenberg)(1920~1996)의 이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절대적 은유’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함의를 중심으로 세계해석에 대한 그의 관점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글은 은유에 대한 이해를 통해 또한 여전히 신비한 베일로 가려져 있는 한 철학자의 면모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길 기대한다.³⁾ 블룸베르크처럼 자주 그 이름이 인

2) 김덕영, 『게오르그 짐멜의 모더니티 풍경 11가지』, 도서출판 길, 2007, 69쪽. 당시 독일 지식인 사회와 대학으로부터 배척을 받게 된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기도 하는 짐멜의 에세이식의 문체는 나름대로의 통찰에 근거한 것이다. 짐멜에 따르면 근대 이후로 본질적-실체적이고 고정적인 것은 관계적-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것으로 해체되었다고 한다. 그에 따라서 다양한 현상이 전면에 부각되었으며, “인간의 문화적-사회적 삶에 대한 본질적관(후설)을 보증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본질적인 실체가 아니라 다름 아닌 현상 그 자체이다. 따라서 인식하는 주체는 (...) 현상 그 자체를 지향해야 한다. 짐멜의 에세이는 이러한 현상 지향성에 근거하는 것이다.”

3) O. Marquard, "Entlastung vom Absoluten", in: *Die Kunst des Überlebens. Nachdenken über Hans Blumenberg*(Hg. F. J. Wetz u. H. Timm), FfM 1999,

용되지만 그의 사상 전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진 것이 드문 인물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의 “수많은, 광범위한, 착상이 풍부하며, 정신적으로 풍성한 책들이 스스로를 은폐하고 감추는 것을 즐긴다”고 한다. 그래서 그를 읽을 수는 있지만 그의 사상은 볼 수는 없으며, 그래서 눈에 띄지 않게 머문다고 말하기도 한다.⁴⁾ 그런 배경에서도 그의 사상을 ‘은유’(隱喻)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있다.

2. 철학과 은유: ‘장식기’(裝飾期)에서 ‘본질기’(本質期)로

‘넘어서’라는 meta와 ‘가져가다’라는 의미의 pherein이 결합된 희랍어 Metaphora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은유(Metapher, metaphor)는⁵⁾ 지금까지 철학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 내지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철학에서는 대체로 상반되는 관점 즉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이 대립하고 있으며, 적어도 현대에 이르기까지 부정적 관점이 주도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현대에 들어오면서 서

17쪽 참조. 요나스(H. Jonas)는 현대 철학자 중에서 누가 중요한 철학자인가라는 물음에 블루멘베르크를 꼽았다는 사실을 마르크바르트는 언급한다.

4) F.J. Wetz, *Hans Blumenberg. Zur Einführung*, Hamburg 1993, 7쪽 아래 참조. 1947년 키일(Kiel) 대학에서 『중세-스콜라 철학의 존재론의 근원성의 문제에 대한 연구』(Beiträge zum Problem der Ursprünglichkeit der mittelalterlich-scholastischen Ontologie)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1950년 같은 대학에서 『존재론적 차이. 후설 현상학의 위기에 대한 연구』(Die Ontologiscvhe Distanz. Eine Untersuchung über die Krisis der Phänomenologie Husserls)로 교수자격논문을 통과한 블루멘베르크는 함부르크(Hamburg) 대학, 기센(Gießen) 대학, 보쿰(Bochum) 대학을 거쳐 뮌스터(Münster) 대학에서 1985년 정년때까지 머물렀다. 블루멘베르크는 두 가지 중요한 상의 수상자였는데, 그 하나는 1974년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대학의 쿠노 피셔 상(Kuno-Fischer-Preis)이며, 다른 하나는 1980년 언어와 시 분야의 독일 학술원의 학문적 산문에 대한 지그문트 프로이트 상(Sigmund-Freud-Preis)이 그것이다.

5) T. 호크스, 『은유』(심명호 옮김),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1쪽.

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 글쓰기에 있어서 은유적 표현법의 단순한 적용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해석학과 언어철학 등에서 은유 자체가 중요한 철학적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철학에서의 은유 연구의 역사는 그리스 시대부터 19세기까지를 ‘장식기’(裝飾期)로, 20세기 이후의 ‘본질기’(本質期)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장식기’란 표현 그대로 은유를 수사학적 장식물로 간주했던 시기이며, ‘본질기’란 은유의 실체와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면서 은유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말하며, 은유에게 정보 전달 및 의미 표현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관점이 대두했음을 뜻한다.⁶⁾ 아래에서는 은유에 대한 이러한 관점의 변화과정과 그 귀결을 추적해보고 한다.

2.1. 치장과 장식 수단으로의 은유

은유에 대한 평가, 즉 은유의 중요성과 유용성에 관한 물음은 수사학의 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수사학에서 은유는 ‘우선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진술된 것과 서술된 것의 치장수단이나 조명수단으로 중요시된다. 은유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수사학에 대한 이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수사학은 ‘훌륭한(곧 효과적인, 아름다운) 말에 관한 재주이거나 학문’(ars/scientia bene dicendi)이라는 퀸틸리아누스(Quintilian)의 정의로부터 자연스럽게 은유에 대한 정의도 도출되어진다. 그는 “은유는 (...), 그것이 그렇게 찬란한 말의 연관에서 나타나더라도 여전히 고유한 광명을 발하는 것같이, (...) 신선하고 눈부시게 작용한다”고 진술한다.⁷⁾ 이런 방향에서 은유들은 말함의 치장으로서 특정한 진술에 특별한 광채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작용의 상승을 위해 권해지는 치장에 속한 것으로 간주된다. 치장을 사용

6) 김진우, 『은유의 이해』, 나라말, 2005. 74~76쪽 참조.

7) M.F. Quintilianus, *Ausbildung des Redners*, Darmstadt 1988, Buch 8, 6.4 쪽.

한 은유들은 비판적인 청중에게 동의와 인정을 요구하는 진술을 위해서 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능에서 은유가 진술의 확장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른 의미층위를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기능이 아니라, 제한적인 기능만이 은유에게 허용된다. 은유는 어떤 확증을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게 만들기는 하지만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방식에서 진술될 수 없는 것을 표현하지는 않는다”⁸⁾는 것이다.

2.2. 부정확한 선개념과 불명료한 사고형식으로서의 은유

위에서 언급된, 제한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을 인정하는 입장과 구별되는 것이 은유란 언어의 부정확한 선개념이며, 그에 따라 불명료한 사고의 형식을 간주하는 입장이다. 이것은 주로 개념적-논리적 사고의 입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의식이다. 여기서는 은유의 사용에 대한 큰 불신이 지배한다. 이 입장은 은유가 단지 부정확하고 고유하지 않게, 고유하고 정확한 언어에서 더 잘 말해질 수 있는 것을 표현할 따름이라고 평가 절하한다. 그에 따라 은유는 “개념형성의 진입지역”(Vorfeld)⁹⁾에서 유동한다. 은유는 철학과 과학의 진행에서 ‘개념적이며’ ‘정확하게’ 파악되는 것을 ‘선개념적이며’ ‘막연하게’ 통지한다. 그러한 조망방식은 “신화에서 로고스(이성)에로의”¹⁰⁾ 이행에 상응하게 “은유로부터 개념으로의 이행들을”¹¹⁾ 파악한다. 여기서는 전의적(轉義的)인 말의 모든 “형식들과 요소들은 (...) 임시적이며 논리적으로 능가 가능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입장의 배후에는 다의적인 은유가 일의적인 개념으로 변형되어진다는 가정이 놓여있

8) H. Blumenberg, *Paradigmen zu einer Metaphorologie*(이하 ‘Paradigmen’으로 약함), FfM 1999, 9쪽.

9) H. Blumenberg, *Schiffbruch mit Zuschauer*(이하 ‘Schiffbruch’로 약함), FfM 1979, 77쪽.

10) *Paradigmen*, 10쪽.

11) *Paradigmen*, 117쪽.

다. 따라서 모든 은유들이 근절되어지고 철학적인 언어가 순수하게 파악되는 상태가 바람직한 것으로서 간주된다. 블루멘베르크가 『은유학의 범형들』의 서론에서 상술하듯이, 그러한 이상(理想)을 예컨대 데카르트가 그의 『방법서설』에 추적하고 있다. 데카르트의 방법적 프로그램에서는, ‘명석’, ‘판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듯이, 개념적인 명료성과 규정성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만이 허용된다. 그에 반해 “객관적인 명료성으로 (경)향하는 언어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¹²⁾은 허용되지 않는다.¹³⁾ 여전히 아직 은유가 등장하는 곳에서는 “잔재들, (...) 잔여”¹⁴⁾가 중요하며, 이것들은 명료하게 정의된 개념을 통한 자신의 임무가 종결되기를 기대할 따름이다.

2.3. 진술확장적인, 철학적 언어의 근본 요소로서의 은유

일반적으로 플라톤에서 데카르트 그리고 칸트까지 이어지는 서양철학의 주류는 대체로 수사학, 따라서 은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의 이론적 논의의 모델이 대체로 수학적인 설명방식에 기초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통에서는 수학적 설명이 수사학적 표현보다 철학의 도구로서 더 적절한 것이며, 따라서 철학은 다의성이 지배하는 의미의 세계와는 무관한 영역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해체될 수 있는 잔재’라는 은유에 대한 경멸적인 평가 절하에 반하여 블루멘베르크는 ‘환원될 수 없는 사고 형식’으로서 은유에 대해 상응하는 가치를 부여한다. 기본

12) *Schiffbruch*, 83쪽.

13) 이런 일반적인 견해와는 다르게 수사학에 대한 데카르트의 입장과 데카르트의 수사(법)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을 박치완(『데카르트와 수사학』, 『해석학연구』 제 20집(2007), 137쪽 아래)이 제공하고 있다. 요약하면 데카르트가 수사학에 대해 가진 반감과는 달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때 논증의 주제 또는 강도에 따라 적절한 수사(법)를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14) *Paradigmen*, 10쪽.

적으로 그는 은유들이 꾸미는 치장이며, 개념적으로 추월될 수 있는 잔여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은유들이 항상 진술의 확장에만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은유들은 때때로 또한 상상적으로 미리 구상하는, 개념의 사전 형식들이다. 그것은 엄밀한 용어를 정의(定義)상의 규정성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블루멘베르크는 우리가 “핵심적 표현들(Formeln)이 가능한 곳에서는 은유를 벗어날 수 없다”¹⁵⁾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은유들이 단지 치장이나 잔재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박한다. 학문과 철학이 은유 없이는 전혀 꾸러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은유들은 더 나아가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의미를 가진다. 은유는 블루멘베르크에 의해 ‘대체불가능한’ ‘절대적’ 의미와 위상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서구 철학에서 은유에게 정당한 철학적 의미를 부여한 시도는 꾸준히 존재해왔지만 대체로 ‘비주류’에 속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데카르트의 방법적 프로그램이 함축하고 있듯이, 모든 ‘언급할 만한 것’과 ‘표현 할 수 있는 것’을 담당한다고 선언한 논리적 혹은 학문적 개념을 통해 은유는 평가 절하되었다. 이러한 평가에 반하여 은유의 방어를 시도한 역사는 데카르트 비판가였던 비코(G. Vico, *Neue Wissenschaft*)에서 하만(J.G. Hamann, *Schriften zur Sprache*), 니체(F. Nietzsche, “Über Wahrheit und Lüge im außermoralischen Sinne”), 카시러(E. Cassirer, *Versuch über den Menschen*)를 거쳐 블루멘베르크에 까지 이어지며, 지금도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다.¹⁶⁾ 예를 들면 비코는 그의 『새로운 학문』(1774)에서 은유를 비롯한 환유와 제유를 단순히 비유의 차원을 넘어 언어사와 문화사를 측정하는 잣대로 삼았다.¹⁷⁾ 은유는 그것이 독자적인 의미내용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의미

15) *Schiffbruch*, 89쪽.

16) F.J. Wetz, *Hans Blumenberg. Zur Einführung*, 20쪽.

내용을 위해서 은유이외의 어떤 다른 표현도 사용하지 않거나 주어져있지 않다면, 치장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것이 만약 그런 경우라면 은유들은 논리적 개념에 의해 대체되거나 내쫓기는 “잔재”들이 아니라, “철학적 언어의 근본 요소들”이다.¹⁸⁾ 그러한 것으로서 은유들은 진술확장적이며 비개념적인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중에 블루멘베르크의 신화연구(*Arbeit am Mythos*)에서 잘 드러나듯이 “자연적인, 정상적인 언어 사용에 반하여 조형적이며 은유적인 이야기”가 중요한 철학적 함의를 가진 것으로 규명된다.¹⁹⁾ 이러한 종류의 언어적인 형상을 블루멘베르크는 “절대적인 은유”²⁰⁾라고 부르며, 이러한 은유에 그의 관심이 집중된다.

2.3.1. 개념사(Begriffsgeschichte)와 철학적 개념

블루멘베르크는 「진리의 은유로서의 빛」이라는 글에서 철학에서 개념사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철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철학의 용어는 다른 분과학문들이 철학에서 개념들을 끌어오거나 명확한 정의를 만듦으로써 자체적인 개념 도구들을 구성해온 용법보다는 훨씬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²¹⁾ 그는 철학이 “개념화

17) G. 비코, 『새로운 학문』(이원두 옮김), 동문선, 1997, 162쪽 아래. 비코는 제2부 「시적 논리학」의 제2장: 시적 비유·괴물·변형에 관한 계층에서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또한 김옥동, 『은유와 환유』, 민음사, 2004, 191쪽 참조. 비코는 인간의 역사를 크게 신의 시대, 영웅의 시대 그리고 인간의 시대로 구분하고, 각각의 시대에 상응하는 비유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신의 시대에는 환유가, 영웅의 시대에는 제유가 그리고 인간의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은유가 가장 널리 쓰였는데, 인간의 시대에서 신체는 추상적인 정신이나 영혼을 표현하는 은유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고 한다.

18) *Paradigmen*, 10쪽.

19) E. Angehrn, *Die Überwindung des Chaos*, FfM, 1996, 32쪽.

20) *Paradigmen*, 10쪽.

21) H. Blumenberg, 진리의 은유로서의 빛. 철학적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모더니티와

되지 않는 것들이나 개념화되기 이전의 것들과 끊임없이 대면해야 하기 때문에, (...) 비개념화와 선개념화에서 발견되는 표명 수단들과 마주치게 되고, 그런 수단들을 채택하거나 그 기원과 다른 방식으로 발전시키게 된다”고 분석한다. 여기서 블루멘베르크는 중요한 귀결을 이끌어낸다. 즉 ‘철학적 로고스를 통한 철학 이전의 신화의 극복’이라는 관념이 바로 철학 용어의 범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협소하게 만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는 철학적 개념의 범위를 “정의(定義)와 충분한 직관을 바탕으로 하는 엄밀한 개념들”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적 추론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다양한 형식의 은유로 표현되는 신비주의적 변형들”까지 확장하고자 한다. 22)

블루멘베르크는 그가 은유와 같은 형식에서 인식하는 “어떤 개념의 이러한 예비적인 사전단계”를 “혼성적인 단계”로서 규정하고, 이 단계에서는 “말해질 수 없는 것에 대해 좀 더 생생하고 민감한 반면, 전통적인 고정된 형식들의 지배는 비교적 덜하다”고 평가한다. 그에 따르면 어떤 철학적 요소들은 “엄격한 체계 건축물 가운데서 전달 매체”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단계를 표현 매체로서 주목하게 된다. 그는 이러한 사전단계 혹은 은유의 세계에 대한 연구가 철학적 개념의 풍부한 원천들을 발굴해 낼 수 있을 것이며, 그를 통해 철학적 사유의 폭도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한다.23)

시각의 헤게모니』(마틴 제이 외 지음)(정성철, 백문임 옮김), 시각과 언어, 2004, 53쪽.
 22) 같은 논문, 53쪽 아래.
 23) 같은 논문, 54쪽.

3. 절대적 은유의 개념과 기능

3.1. 절대적 은유의 개념

“절대적 은유”라는 표현은 블루멘베르크 보다 앞서서 그리고 독립적으로 라틴어 문학 연구자 프리드리히(H. Friedrich)에 의해 적용된다.²⁴⁾ 그러나 이 표현을 통해서 그는 블루멘베르크와는 다른 것을 이해한다. 그에 따르면 절대적 은유는 무엇보다도 현대 서정시에 등장하는 감각적인 ‘비실재’들을 형용하는데, 예를 들면 “나무를 신은 전 원시가 정원에서 으르렁 거린다”와 같은 표현이 그것이다. 그러한 은유들은 “그것의 실재성이 단지 언어에서 존재하는” 세계를 밝힌다.²⁵⁾ 그에 반해 블루멘베르크는 절대적 은유라는 용어를 의미론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그러한 언어적인 이미지(Bild)를 나타내기 위해서 도입한다. 이 의미론적인 내용은 철학과 과학의 개념적이고 객관화하는 언어의 표현력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에 따르면 파악될 수 없는 은유적인 것의 차원이 존재하는데, 이 차원은 개념적이거나 논리적인 것으로 번역되지 않는 것이다. 이 차원이 확고히 하고 타당하게 만드는 것은 개념적-논리적인 시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블루멘베르크에 따르면 엄밀한 개념 언어는 최종적인, 더 이상 능가할 수 없는 학문 언어의 형태가 아니다. 그는 근대 이후에 맹위를 떨쳤던 ‘학문의 용어화와 형식화’라는 데카르트의 프로그램은 불충분한 것이며, 어떤 과학도, 어떤 철학도 이미지와 신화 없이는 꾸려나가지 못한다고 단언한다. 따라서 모든 것은 은유에 빚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까닭에 해석학자로서 블루멘베르크는 철학적 체계론을 그것의 역

24) H. Friedrich, *Die Struktur der modernen Lyrik*, Hamburg 1974, 74쪽(F.J. Wetz, *Hans Blumenberg. Zur Einführung*, Hamburg 1993, 20쪽에서 재인용).

25) 같은 책, 81쪽.

사로부터, 또한 철학적 개념들과 은유들을 그것의 역사로부터 분리해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²⁶⁾

좀 더 자세하게 ‘절대적 은유’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기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절대적 은유는 그것에 대해 어떤 학문도 존재하지 않는 최고의,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질문의 대답에 기여한다. “절대적 은유들은 소위 소박하고, 원리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물음에 답하는데, 이 물음의 중요성은 아주 단순하게 이 물음이 제거할 수 없다는 점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이 물음은 우리가 그 물음을 던진 것이 아니고 현존재의 근거에서 제기된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²⁷⁾. 따라서 절대적 은유 안에는 ‘근원적인 세계상’이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3.2. 절대적 은유의 기능: 이론적 기능과 실용적 기능

만약 절대적 은유가 ‘현존재의 근거’에서 제시된 것이라면 인간 삶에 대한 전통적인 두 관점(bios theoretikos와 bios praktikos)에 의거해 절대적 은유의 과제를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블루멘베르크는 절대적 은유가 “이론적이며” 동시에 “실용적인” 과제를 가진다고 말한다. 먼저 그것의 이론적 기능은 전체 지평의 해명이다. 절대적 은유는 “하나의 세계에게 구조를 제공하며, 실재의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결코 조망할 수 없는 전체를 나타낸다”²⁸⁾. 이 전체는 개념적-논리적 사고에 길들여진 근대의 오성에게는 접근 불가능한 영역이다. 그에 반해 절대적 은유는 현실의 총체성에 대한 이미지(Bild)를 생겨나도록 한다. 그러한 세계-이미지에는 폴리스, 생명, 연극 또는 시계의 장치로서의 현실에 대한 표상들이 속한다. 이러한,

26) O. Marquard, 같은 논문, 23쪽.

27) *Paradigmen*, 23쪽.

28) *Paradigmen*, 25쪽.

그리고 유사한 은유들은 현실의 개별적인 사태관계들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자체의 총체성을 생생하게 묘사하기를 요구한다.²⁹⁾ 따라서 은유는 오성처럼 분석적이 아니라 종합적이다. 그런 배경에서 물론 절대적 은유들이 엄밀한 사고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엄밀한 사고가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절대적 은유들은 이러한 사고의 요구를 ‘다른 방식으로’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는 마치 칸트가 이념의 인식불가능성과 불가피성(요청)을 동시에 정립하는 맥락과 유사해 보인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신뢰하는 언어적 이미지에서 현실의 파악될 수 없는 전체에게 하나의 대리물,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의 표상을 창출한다.³⁰⁾ 블루멘베르크가 그의 『세계의 관독가능성』(*Die Lesbarkeit der Welt*)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듯이 “의미있는-이해적인 세계연관을 나타내는 표현력 있는 은유는 바로 세계의 관독가능성에 대한 이미지인 것이다.”³¹⁾

그러나 절대적 은유는 유럽적 사고의 역사에서 현실의 비대상적인 총체성만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발향설정의 표본으로서 기능한다. 절대적 은유의 의미내용에는 평가가 속하는데, 이것은 특정한 “태도, 기대, 근면과 빈둥거림, 동경과 실망, 관심과 무관심”³²⁾을 방출한다. 그에 의거해서 절대적 은유는 또한 “기본 자세와 태도”³³⁾의 표현형식이다. 절대적 은유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미지를 통해 세계를 표현하며, 같은 정도로 실용적인 측면에서 인간 행위를 방향설정한다.

29) *Paradigmen*, 25쪽 아래.

30) F.J. Wetz, 위의 책, 22쪽.

31) E. Angehrn, *Interpretation und Dekonstruktion. Untersuchung zur Hermeneutik*, Göttingen 2003, 17쪽.

32) *Paradigmen*, 25쪽.

33) *Paradigmen*, 81쪽.

3.3. 절대적 은유의 역사: 기능에 대한 예증

블루멘베르크는 절대적 은유의 다양한 실행들을 수많은 역사적 사례에서 선보인다. 그는 근본적인 이미지들의 ‘발전사’의 계열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 이미지들의 위치에는 시간의 경과에서 종종 엄밀한 개념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시 다른 언어적 이미지들이 등장하였다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근본적인 은유들의 변화에 대한 블루멘베르크의 묘사는 특정한 은유들의 등장에 대한 단지 사전적인(어휘상의) 조망 이상의 것을 제공한다.³⁴⁾ 블루멘베르크는 절대적 은유가 세계와 인간의 전망방식을 구조화한다는 전제에서 나아가서 상이한 현존재의 은유와 세계 은유로부터 그때마다 경험 가능성의 전체를 가려내고자 즉 “그것의 개념내부에서 그것의 변형들을 경험하는” 역사적으로 변하는 의미지평을 발굴하고자 노력한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절대적 은유의 “역사”이다.³⁵⁾

절대적 은유의 이론적인 표현 기능과 실용적인 방향설정의 기능을 예증하기 위해 두 가지 상반된 예, 즉 스토아학과와 에피쿠로스학파의 세계 이해가 제시될 수 있다고 한다. 예컨대 범신론적인 스토아 학자들은 세계라는 표현을 통해서 외관상으로 방향 설정된 조화로운 질서연관을 이해한다. 물리적 우주에 관련해서 그들은 코스모스라는 절대적 은유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잘 정돈된 장식의 배열을 의미한다. 먼저 코스모스라는 절대적 은유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현실의 비대상적인 총체성은 완전한 장식의 배열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은 ‘실용적인 기능’ 즉 ‘삶의 의미’를 동시에 지시하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이란 물리적 우주인 장식의 배열을 보기 위해서

34) 예를 들면 E.R. Curtius(*Europäische Literatur und Lateinisches Mittelalter*, Bern/München 1978, 138쪽 아래)가 이러한 유형의 사전적인 조망을 제시한다 (F.J. Wetz, 위의 책, 22쪽에서 재인용).

35) *Paradigmen*, 13쪽.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원자론적이며 기계론적인 에피쿠로스 학자들은 세계는 빈 공간에서 움직이며, 여기서 결합하고 분리하는 원자들의 무한성으로 구성되어있다고 조망한다. 원자적인 세계연관은, 그것을 통하여 동시에 자연의 무가치성과 무관심성이 그 안에서 흐르는 과정에 대하여 표현되어질 때, 절대적 은유의 성격을 갖는다. 자연은 신적인 것도 피조물도 아니며, 그것은 그야말로 자연적인 것이다. 따라서 은유로서 자연성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공포를 조장하는 신들은 더 이상 이러한 유물론적 세계관에서 설 자리가 없으며, 우리는 이러한 신들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공포를 지닐 이유가 없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러한 이론적인 조망에 상응하게 이 세계관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문제로서의 세계를 무관심의 대상으로 전환시켜주며, 자연에 대해서도 인간은 더 이상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방향설정을 제공한다.³⁶⁾

절대적 은유들은 신화적, 종교적, 형이상학적 의미지평과 전망방식에서만 마주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과학적 세계파악도 은유를 포함하고 있다. 블루멘베르크는 이러한 관점을 「은유화된 우주론」이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다.³⁷⁾ 근대에서는 코페르니쿠스와 결합된, 행성중의 하나의 행성으로서 지구의 평가절하와 중립화는 “인식으로서, 가설로서가 아니라, 은유로서”³⁸⁾ 취해졌다. 우주는 지구에서의 인간의 위상에 대해 해명하는 은유의 지위에까지 높여졌다. “지구중심설(Geozentrik), 태양중심설(Heliozentrik)과 같은 표현은, 그로부터 지구에서 인간과 더불어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 알아차려야만 하는 도표가 되었다.³⁹⁾ 이것을 블루멘베르크는 “우주론적 은유를 통한 우리의

36) F.J. Wetz, 위의 책, 23쪽.

37) *Paradigmen*, 142쪽.

38) *Paradigmen*, 144쪽.

39) *Paradigmen*, 144쪽 아래.

자기이해의 조정(Gängelung)⁴⁰⁾이라고 서술한다. ‘자기 이해의 조정’ 즉 세계관의 변화는 근대에서 인간에게 커다란 실망과 각성을 선사하였다. 여기서 ‘중심과 ’주변부‘의 관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물리학적인 우주론의 측정할 수 없는 우주는, 지구가 더 이상 “우주적인 노력들의 우대된 동감의 중심”⁴¹⁾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인간은 더 이상 “이러한 전체 우주의 축제(행사)를 자신에게 관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한 절대적 은유로 상승한다.⁴²⁾ 지구와 인간은 이제 세계 이해의 중심축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이제 세계의 “특별한 특징이 없는”⁴³⁾ 측정할 수 없는 우주에서 인간은 “그의 변두리에서의 참여”⁴⁴⁾를 의식하게 된다.

이 예는 절대적 은유들의 기능이 오로지 ‘긍정적인’ 의미수립에서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절대적 은유가 총체성을 나타내고, 근본태도를 표시하기는 하지만, 필연적으로 의미, 가치, 세계 신뢰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원자론적인 에피쿠로스학파도, 또한 과학적인 세계 파악도 절대적 은유와 우리가 신뢰하고, 가치를 포함한 의미세계를 동일시하는 것을 논박한다. 왜냐하면 절대적 은유들은 여기서 우주를 의미와 가치 없이 생생하게 묘사하는 이론적 기능뿐만 아니라, 인간 현존재의 형성에 있어서 물리적인 우주의 무관심을 지시하는 실용적인 기능을 떠맡기 때문이다. 절대적 은유들은 그것들이 표현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개념적 사고가 종결될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장소를 가진다. 왜냐하면 그러한 ‘세계’, ‘역사’, ‘삶’과 같은 논제들은 개념적 사고의 인식 가능성을 뛰어넘는 무리한 요구들이기 때문이다.⁴⁵⁾

40) *Paradigmen*, 145쪽.

41) *Paradigmen*, 156쪽.

42) *Paradigmen*, 152쪽.

43) *Paradigmen*, 157쪽.

44) *Paradigmen*, 144쪽.

4. 절대적 은유의 현재성

이제 철학과 과학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의의를 보유하고 있던 절대적 은유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러한 위상을 누릴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 이미 ‘절대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암시되었듯이, 중요한 것은 절대적 은유가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식되지 않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적이라는 사실이다. 절대적 은유는 개념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개념사적인 접근을 통해 블루멘베르크가 보여주는 것은 절대적 은유가 마치 개념적-논리적 사고 아래에 놓여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다. 블루멘베르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사고의 지하에 숨은 층위”의 주제화이다.⁴⁶⁾ 그 결과 은유학(Metaphrologie)의 과제는 “사고의 하부 구조 즉 토대 혹은, 체계적인 결정화(結晶化)를 가능하게 하는 배양액에 도달하는 것이다.” 해석학의 용어로 표현하면 개념화와 용어화 즉 개념적-논리적 사고에 선행하는 선학문적, 선논리적, 선진술적 영역에서 정신의 활동을 파악하는 것이 은유학의 과제인 것이다. 이 과제는 “정신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이미지 자체에서 앞서 있는지”⁴⁷⁾를 가리키기 위한 것이다. 신화, 종교 그리고 형이상학은 절대적 은유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 그것들은 한편으로 그것의 총체성 어휘와 방향설정 어휘의 의심할 바 없는 자명성에서 움직이며, 다른 한편으로 단어 그대로 이해한다. 절대적 은유의 발전사에 대한 표현을 통하여 역사적인 조망방식과 의미지평의 변화를 명백하게 만드는 은유학은 신화, 종교

45) F.J. Wetz, 위의 책, 24쪽 아래.

46) J. Goldstein, “Deutung und Entwurf. Perspektiven der historischen Vernunft”, in: *Die Kunst des Überlebens. Nachdenken über Hans Blumenberg*(Hg. F. J. Wetz u. H. Timm), FfM 1999, 220쪽.

47) *Paradigmen*, 13쪽.

그리고 형이상학만을 은유법(Metaphorik)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게다가 우리를, 어떤 절대적 은유가 현재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결코 진술할 수 없는, 당혹감에 처하게 만든다.⁴⁸⁾

일반적으로 신화, 종교 그리고 형이상학을 단순한 은유법으로 과소 평가하는 것은 총체성 어휘와 방향설정 어휘가 비개념성(Unbegrifflichkeit)의 경우들이라는 통찰로부터 생겨난다. 이 통찰은 이런 어휘들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게 만들며, 따라서 단어 그대로 취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절대적 은유는 자신의 모두 힘과 구속력을 단지 절대적 은유가 단어 그대로 취해질 경우에만 가진다. 그에 반해 절대적 은유는 자신의 ‘낱말에 충실함’(Wörtlichkeit)을 상실하게 되면 약화되어진다. 절대적 은유에 대한 평가절하는, 이것들이 더 나아가 자신의 자명성을 상실한, 은유에 대한 반성적인 은유학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면 계속 진행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은유학을 행하는 자로서 (...) 이미 은유들에서 그러한 답할 수 없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발견하는 가능성을 단념하였다”⁴⁹⁾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것은 인간이 단지 단어에 대한 의식적인 반성이전에 그러한 단어(은유)가 주는 메시지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에만 절대적 은유의 ‘영향력’아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블루멘베르크는 절대적 은유의 불가피성을 고집한다. 왜냐하면 총체성 물음과 방향설정 물음들이 인간의 삶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유들이 단어 그대로 취해질 수 있었고, 그래서 형이상학이 가능했던 시대는 지나갔다. 블루멘베르크가 『은유학의 범형들』의 마지막 문장에서 선언적으로 표명하듯이, “형이상학은 우리에게 종종 단어 그대로 간주된 은유법으로 입증된다. 형이상학의 소멸은 은유법을 다시 그것의 자리로 부른

48) F.J. Wetz, 위의 책, 25쪽 참조.

49) *Paradigmen*, 24쪽.

다.”⁵⁰⁾ 탈형이상학적 시대에서의 철학함이 ‘은유법’을 요청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은유들은 학문들이 아직 혹은 원리적으로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점유한다. 여기서 절대적 은유의 불가피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 자리들은 일상적인 이해에 따르면 (지금까지) 형이상학에 의해 점유된 자리였다. 예를 들면 최초의 출발들과 최후의 목적들, 하나에서 다수로, 직관에서 개념으로 그리고 그 반대로.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세계, 삶, 역사에 대한 총체성 표상들과 연관되는 것들이다. 블루멘베르크는 그러한 자리가 보유하는 기능을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다.⁵¹⁾ 이런 배경에서 그의 은유법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연관들에 관한 이해의 진정한 실행방법으로서”⁵²⁾의 은유법은 형이상학보다 적은 것이며 과학보다는 더 많은 것이다. 은유법은 증명될 수도 논박될 수도 없으며, 총체성 요구와 방향설정의 요구를 충족함으로써 자신의 구속력을 획득하는 은유들을 명료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그러나 『은유학의 범형들』의 지반위에서는 어떻게 오늘날 절대적 은유들이 신뢰성과 수용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계속해서 풀리지 않은 채 머물고 있다.

5. 절대적 은유의 전망

바로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암시는 블루멘베르크의 「비개념성의 이론에 대한 조망」⁵³⁾과 「수사학에로의 인간학적 접근」⁵⁴⁾

50) *Paradigmen*, 193쪽.

51) B. Merker, “Bedürfnis nach Bedeutsamkeit. Zwischen Lebenswelt und Absolutismus der Wirklichkeit”, in: *Die Kunst des Überlebens. Nachdenken über Hans Blumenberg*(Hg. F. J. Wetz u. H. Timm), FfM 1999, 96쪽. 메르크는 이와 연관해서 제기되는 세 가지 방식의 형이상학의 변형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52) *Schiffbruch*, 77쪽.

53) *Schiffbruch*, 75-93쪽.

이라는 글들이 제공한다. 여기서 그는 오늘날 참으로 절대적 은유의 동의하는 전유가 “비합리적인 결정들”⁵⁵⁾과 동일시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 그는 비합리적인 결정들을, 그것이 비록 은유적인 해석표본과의 교제에 있어서 허용되는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블루멘베르크는 비논증적 철학함의 행동방식에 관여하려 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철학적 논증의 한계들을 인식한다. 이 한계들은 근본적으로 극복 가능한 결함으로 평가되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인간 의식의 실행 한계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의 사실이 보편적인 타당성을 획득한다. 철학적 논증이 한편으로 ‘무정부적인 임의(Willkür)’이고자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식의 확실성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오늘날 특히,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총체성 지식과 방향설정 지식에로의 우리의 욕구에 상응하려고 노력하는, 절대적 은유의 선택에서 확실성에의 커다란 결함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절대적 은유의 권리에 대한 신뢰는 단지 “충분한 근거제시 없이”⁵⁶⁾ 가능하기 때문이다.⁵⁷⁾

그러나 충분한 근거제시에의 결함은 “근거의 거부에 대한 요청과 혼동해서는 안 되며, 이는 ‘의견’이 근거되지 않은 태도가 아니라 혼란스럽고 방법적으로 무질서하게 근거된 태도를 형용한다”⁵⁸⁾는 것과 같다. 이 ‘불충분한 근거의 원칙’은 단지 다소간 설득력있는 논증들을 통해서 뒷받침되는 용인가능하고 명백한 것이 허용되기 위해서 정립된다. 바꾸어 말하면 이 원칙은 점진적인 설득과 이해의 과정을 위한 최소한의 논증 제시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증들은 결코 확

54) H. Blumenberg, *Wirklichkeiten, in denen wir leben*, Stuttgart 1981, 104-135쪽

55) *Schiffbruch*,, 88쪽.

56) 같은 책, 같은 곳.

57) F.J. Wetz, 위의 책, 27쪽.

58) H. Blumenberg, *Wirklichkeiten, in denen wir leben*, 125쪽.

정적인 직관 혹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입증의 성질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불충분한 근거의 원칙’은 총체성 물음과 방향설정 물음에서 개념적인 규정성과 확정적인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불가능성으로부터 귀결되는 당혹함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절대적 은유는 총체성 어휘와 방향설정 어휘를 확실하고, 그와 함께 동의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성취되는 정도에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노력들은 특히 과학화와 형이상학 비판의 시대에서 우리의 총체성 욕구와 방향설정 욕구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가”⁵⁹⁾하는 인간 인식의 근본적 한계에 대한 물음을 다루어야만 한다. 바꾸어 말하면 절대적 은유의 권리가 ‘충분한 근거제시 없이’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근본적 한계를 고려하면 ‘충분한 존립근거’가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득’과 ‘동의’의 문제가 절대적 은유의 수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은유에 대한 블루멘베르크의 기획, 특히 논증의 문제가 형식적인 윤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은유에 대한 논의를 그의 『은유학의 범형들』에 국한시킬 경우에만 타당하다. 이후에 전개된 그의 지속적인 작업은 큰 틀에서 여전히 은유와 연관되어 있으며, 스스로 이러한 은유에 대한 다양한 논증을 펼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절대적 은유’에 대한 논증이,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코 확정적인 직관 혹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입증의 성질을 가질 수 없는’ 즉 최종적이고 보편타당한 형식으로 제시될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어떤 절대적 은유가 오늘날 적절하며 이 은유가 어떤 설득력있는 논증에 의해 지탱되어지는가라는 물음에 답할 의무는 블루멘베르크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⁶⁰⁾

59) Schiffbruch, 89쪽.

60) F.J. Wetz, 위의 책, 28쪽.

6. 나오는 말: 은유와 세계이해

일반적으로 은유는 일반적으로 “시적 상상력과 수사적 풍부성의 도구”로서 간주되어 왔다.⁶¹⁾ 그러나 블루멘베르크는 절대적 은유의 이론적 기능과 실용적 기능에 대한 조명을 통해서 은유가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일상적인 삶과 학문적인 노력)에 스며들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세계를 언어를 통해서 이해한다. 그런 배경에서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개념들은 단순히 학문이나 지성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것들은 가장 세속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을 지배한다. 개념은 우리가 지각하는 것, 우리가 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 등을 구조화한다. 따라서 개념 체계는 우리의 일상적인 실재를 규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⁶²⁾ 결국 개념 체계의 폭이 인간의 세계이해에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비코가 인간의 삶의 질서가 기하학(점, 선, 평면 그리고 입체)보다 더 많은 실재를 지닌다고 했을 때, 이는 우리가 논리적-개념적인 과학적 언어를 통해서만 세계를 이해한다면 매우 단편적인 세계이해에 머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⁶³⁾

훔볼트(W.v. Humboldt)가 언어란 생명 없는 산물로서의 ‘에르곤’(ergon)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속적 활동으로서의 ‘에네르게이아’(energeia)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끊임없는 생산적 노력을 통해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라는 메시지인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은유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블루멘베르크의 입장은 단순히 은유적인 성격이 우

61) G. 레아코프, M. 존슨, 『삶으로서의 은유』(노양진, 나익주 옮김), 서광사, 2004, 21쪽

62) 같은 책, 같은 곳.

63) E. Angehrn, *Geschichtsphilosophie*, Stuttgart/Berlin/Köln, 1991, 64쪽 참조.

철학탐구 제23집

세하였던 인간 문화의 초기 단계로의 회귀가 아니라⁶⁴⁾ 언어가 살아 숨 쉬고 다양한 삶의 층위를 보여줄 수 있는 ‘근원적인 세계로의 귀향’을 의미한다.

(중앙대학교)

64) 신웅철, 『캣시러의 문화철학』, 한울아카데미, 2000, 148쪽 참조.

참고문헌

- E. Angehrn, *Interpretation und Dekonstruktion. Untersuchung zur Hermeneutik*, Göttingen 2003.
- E. Angehrn, *Die Überwindung des Chaos*, FfM, 1996.
- H. Blumenberg, *Schiffbruch mit Zuschauer*, FfM 1979.
- H. Blumenberg, *Paradigmen zu einer Metaphorologie*, FfM 1999.
- H. Blumenberg, *Wirklichkeiten, in denen wir leben*, Stuttgart 1981.
- H. Blumenberg, 「진리의 은유로서의 빛. 철학적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모더니티와 시각의 헤게모니』(마틴 제이 외 지음)(정성철, 백문임 옮김), 시각과 언어, 2004.
- J. Goldstein, “Deutung und Entwurf. Perspektiven der historischen Vernunft”, in: *Die Kunst des Überlebens. Nachdenken über Hans Blumenberg*(Hg. F. J. Wetz u. H. Timm), FfM 1999.
- O. Marquard, "Entlastung vom Absoluten", in: *Die Kunst des Überlebens. Nachdenken über Hans Blumenberg*(Hg. F. J. Wetz u. H. Timm), FfM 1999.
- B. Merker, “Bedürfnis nach Bedeutsamkeit. Zwischen Lebenswelt und Absolutismus der Wirklichkeit”, in: *Die Kunst des Überlebens. Nachdenken über Hans Blumenberg*(Hg. F. J. Wetz u. H. Timm), FfM 1999.
- F.J. Wetz, *Hans Blumenberg. Zur Einführung*, Hamburg 1993.
- 김덕영, 『게오르크 짐멜의 모더니티 풍경 11가지』, 도서출판 길, 2007.
- 김옥동,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2.
- 김옥동, 『은유와 환유』, 민음사, 2004.
- 김진우, 『은유의 이해』, 나라말, 2005.
- G. 레아코프, M. 존슨, 『삶으로서의 은유』(노양진, 나익주 옮김), 서광사, 2004.
- 박치원(「데카르트와 수사학」, 『해석학연구』 제20집(2007).
- G. 비코, 『새로운 학문』(이원두 옮김), 동문선, 1997.
- 신용철, 『찾시러의 문화철학』, 한울아카데미, 2000.
- T. 호크스, 『은유』(심명호 옮김),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Die Hermeneutik der Metapher bei H. Blumenberg

Choi, Sung-Hwan

Zur Zeit hat die Rhetorik Konjunktur. Wenn man sich die Herabwürdigung der Rhetorik in der Neuzeit vorstellt, ist die heutige Stellung der Rhetorik ein bewundernswürdiges Ereignis. In der Rhetorik spielt die Metapher eine große Rolle. Was eine Metapher mitteilen will, hat nicht mit einem begrifflich-logischen Gedanken zu tun. Nach Blumenberg sind Metaphern keine Restbestände, die sich im Verlauf der Wissensentwicklung durch logische Begriffe ersetzen und verdrängen lassen, sondern Grundbestände der philosophischen Sprache. Dies bedeutet, daß durch die Metaphern der Umfang des philosophischen Denkens erweitert werden kann.

Blumenberg fragt bemerkenswerterweise nicht nach dem Hintersinn, sondern nach der Funktion von Metaphern. Diese besteht für ihn darin, Sinnerwartungen, Orientierungen und Sichtweisen von der Welt und dem Menschen zu charakterisieren. Metaphern sind absolut, wenn sie sich nicht durch Begriffe ersetzen lassen. Absolute Metaphern erfassen umgreifende Zusammenhänge und geschichtliche Sinnhorizonte, die dem wissenschaftlichen und begrifflichen Denken unzugänglich sind. So sehr Blumenberg in seiner Metaphorologie auch einen eigenständigen Standpunkt vertritt, so wenig kommt doch bereits hier sein eigentlicher Grundgedanke zum Durchbruch.

Key Words: Metapher, Absolute Metapher, Metaphorik, Metaphorologie, Rhetorik, Hermeneutik, Philosophische Begriffe, Philosophische Sprache, Blumenberg

최성환 e-mail: shchoi@cau.ac.kr